

해외의약뉴스

신약은 편두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두 임상시험의 예비 조사 결과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라고 불리는 작은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두 개의 실험약물이 편두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상시험에서 ALD403 약물의 5~8주간의 투여 후 편두통 발생이 66% 감소한 것을 관찰했으며,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LY2951742 약물을 주입한 결과 편두통 발생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편두통, ALD403, LY2951742

두 초기 임상시험에서 두 개의 실험약물이 편두통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임상시험의 예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험약물이 매월 수차례 편두통 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두통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정맥주사 약물과 주사 약물 제형으로 된 이 두 가지 실험약물은 편두통 예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단일클론항체로서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라고 불리는 작은 단백질을 타깃으로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CGRP를 주목하고 있다.

첫 번째 임상시험에서 정맥주사 약물 ALD403의 5~8주간의 투여 후 환자들의 편두통 발생이 66% 감소되었다. 이에 비해 위약 혹은 비활성의 주입물을 투여한 그룹의 환자들은 편두통 발생이 52% 감소되었다. 다른 임상시험에서 3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주사 약물 LY2951742를 투여 받은 환자들에게서도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4월 22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신경학 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의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실험 결과는 예비 조사이며, 이에 관하여 아직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음을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두 연구에 참여한 Peter Goadsby 박사¹⁾는 “특정 통증에 대한 신약이 개발 중에 있어서 편두통 환자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사는 “현재 편두통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들은 모두 오래전 개발된 약물로서 원래 다른 질환들을

1)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신경과전문의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물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약물들은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항경련제를 포함한다.

반면, Richard Lipton 박사²⁾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를 타깃으로 한 이번 실험약물들은 편두통을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맞춤 약물이라고 말했다.

Lipton 박사는 “이러한 초기 연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를 타깃으로 하는 개념은 매우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Lipton 박사와 Goadsby 박사는 “약의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맥주사 약물인 ALD403을 테스트한 임상시험은 163명의 환자들을 실험약물 투여군과 위약군으로 임의로 배정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치료 전 매월 5-14일은 편두통을 겪는 환자들이었다. 5-8주 후, 실험약물 투여군은 월별 평균 편두통을 앓는 날이 5.6일 감소하여 66%의 감소를 보였다. 위약군 또한 편두통을 앓는 날이 4.6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ipton 박사는 실험약물의 효과는 통계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217명의 환자들에게 LY2951742 실험약물과 위약을 12주 동안 격주로 주입했다. 두 그룹 역시 편두통 완화를 경험하였지만, 완화 정도는 실험약물 투여군에서 더 컸다. 이 그룹의 환자들은 월별 편두통을 앓는 날이 4.2일 감소하여 63%의 감소를 보였다. 위약군은 편두통을 앓는 날이 3일 감소하였으며 42%의 감소를 보였다.

Goadsby 박사는 “그러나 몇 가지 큰 의문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연구진들은 약물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환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Lipton 박사는 “단기적으로 관찰한 바로는 환자들이 약물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사 약물 투여군은 위약군에 비해 복통과 호흡기감염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정맥주사 약물 투여군은 위약군과 비교해 부작용의 발생이 거의 비슷하였다. 박사는 “약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사는 일부 환자들이 정맥주사 약물의 투여를 꺼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가 주사 약물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립 보건 연구소(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12%는 편두통을 겪고 있다. Lipton 박사는 이를 중 대부분은 진통제로 관리 할 수 있지만 약 1/3은 예방적 약물요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pton 박사는 “그러나 대략 10%의 사람들만이 예방적 약물요법을 받는다. 이는 약물들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예방적 약물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2) 뉴욕 Montefiore Headache Center 두통 전문가

이 연구들은 ALD403을 개발하는 Alder Biopharmaceuticals사와 LY2951742의 개발자인 Arteaus Therapeutics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의학저널에 공동 심의되어 게재되기까지는 기초 연구로 봐야한다.

■ 원문정보 ■

<http://consumer.healthday.com/head-and-neck-information-17/headaches-health-news-345/new-drugs-may-help-prevent-migraines-687057.html>